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성황리 진행중!

-2012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개최 결과-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경기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보름여 간의 전국 민심 대장정에 돌입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월 27일(화) 경기남부(평택축협 안중하나로마트)에 이어 28일(수) 경기북부(포천시농업기술센터), 29일(목) 강원(횡성군농업인회관)에서 낙농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낙농현안에 대해 지역낙농가와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낙농현장을 지켜온 낙농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FTA 파고와 우유소비 감소, 환경규제 강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협회는 낙농정책연구소 출범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강연에서는 지역별로 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 김동수 차장,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박사, 강

원대학교 라창식 교수로부터 환경규제에 대응한 낙농분뇨 자원화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낙농현장에서 농가가 실행할 수 있는 분뇨처리방안에 대해 강연하였다. 특히 착유세정수 처리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청소, 분뇨 분할 유입, 연속폭기 방식 처리를 당부하고 마을단위 공동정화처리 필요성, 주기적인 교반을 통한 효과적인 부숙 퇴비화를 강조하였다.

경기북부지역 토론회

강원지역 토론회

다음 순서로 협회 30년 발자취에 대한 영상교재 방영과 협회 및 낙농자조금 사업실적 보고가 이어졌다. 순회토론회의 하이라이트인 토론회 순서에서는 낙농현안에 대한 불만과 주문이 쏟아졌다. 현장의 낙농가들은 원유값이 올라도 사료값이 또 오르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배합사료 및 조사료값 안정과 효율적인 국내산 조사료 활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유소비촉진 강화 등 낙농 현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육우송아지가 단돈 만원에도 거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협회가 낙농육우산업 기반유지와 농가 권익대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낙농정책연구소가 출범한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한편, 금년도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는 11. 30일(금) 전남, 12.3일(월) 충남, 4일(화) 전북, 5일(수) 경북, 6일(목) 경남, 10일(월) 충북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일자	지역	장소	시간	비고
12. 3(월)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	10:30 ~ 13:30	예산
12. 4(화)	전북	천하장사가든		전주
12. 5(수)	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경산
12. 6(목)	경남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창원
12. 10(월)	충북	충북낙협		청원